SSAT, SAT 및 AMC(American Math Contest) 문제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최근 몇 년간 SAT 와 AMC 문제유출에 관한 내용을 많이 접하고 있었다. 문제유출 방법이 전문화되어 있고, 비밀리에 많은 조직을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로 몇 명을 구속한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가장 창피한 점은 불법을 자행하는 학원이나 어학원, 불법인줄 알고 등록한 학부모, 그리고 그런 학원에 동참한 학생들이 과연 한국의 진정 상류층이라 말 할 수 있을까? 미국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 계층이고 나름 대한민국에서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자식들이 유학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성실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는 학원, 그리고 정도를 가르치는 학부모들이 동시에 비난 받아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이런 문제들이 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일까? 한국 사회에 만연된 엘리트주의와 미국 중, 고, 대학입학 사정을 정확이 모르는 학부모, 컨설턴트, 학원 관련자들 때문일 것이다. 많은 부모들의 바램은 자신의 자식들이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랄 것이다. 그러나 불법을 원하거나 자행한다면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된다. 한국에서의 유명강사의 개념은 성실히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선생들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실전문제를 보유하고 있고 동일한 문제를 학생들에 직접 제공해줘 고득점을 얻게 하는 선생들이 유명강사이다. 시험지 유출 방법도 시차이용, 아르바이트생 고용 문제 암기, 동남아 지역에서 시험응시 후 답안 제공, 계산기, 지우개, 스마트폰을 이용한 문제 유출, 대리 시험, 자국과 타국 브로커를 통한 실전문제 유출 등 너무도 대범하고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은 또다시 반복될 거라 생각된다. 이럴수록 대한민국에 대한 교육적 불신은 미국에서 더욱 커지고 진실, 열정, 그리고 진정한 미국 유학생들이 동시에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표준 시험이 중, 고, 대학 입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지 살펴 보기로 하자.

(SSAT 시험)

미국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위해 SSAT 와 TOEFL 점수가 필요하다. SSAT 시험은 시험점수가 일년만 유효하기 때문에 매년 9 월에서 2 월까지 점수가 그 해 지원하는 학교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 미국 내에서 볼 수 있는 SSAT 시험은 10, 11, 12, 1, 2, 3, 4, 6 월에 볼 수 있고 한국에서는 11, 12, 1, 3, 4 월에 볼 수 있다. 그리고 1 년에 한번 즉 8 월 1 일부터 7 월 31 일 까지 1 회 정도는 공인된 컨설팅 회사에서 응시 할 수 있다. 이를 Flex test 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공인된 기관 모두가 라이센스가 취소 되었다. 물론 불법이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에서는 Flex Test 를 볼 수가 없다. 미국 모든 표준 시험문제가 문제 은행식으로 많은 실전문제를 확보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고득점을 얻는 지름길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설 업체들이 앞다퉈 실전문제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SSAT 역시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가 유출 되고 유출된 문제를 많이 확보한 업체는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고 있으며 심지어 점수가 급하게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고액 과외를 통해 손쉽게 고득점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선생이 우수해서 점수를 얻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속칭 유명 SSAT 강사는 많은 실전문제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표준시험은 시험지마다 시리얼 번호가 있어 시험 후 모든 시험문제들이 회수된다. 그러나 항상 100%가 회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SSAT 를 착실히 준비하면 SAT 에서 리딩 점수는 상당히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SSAT 고득점과 SAT 리딩 점수가 반비례하는 것은 무언가 편법이 작용 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지금도 많은 SSAT 학원들이 불법으로 유통된 실전 문제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물론 학부모들이 공공연하게 실전문제 확보 여부로 학원 등록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미국 표준시험 기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관련기관, 선생, 그리고 학생들에게 시험 취소와 지원한 또는 지원할 학교에 불법적인 요소 공개, 학원은 자격정지, 선생은 영구적인 퇴출, 학부모는 실명 공개 등의 특단의 조치 없이는 항상 일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지난 5 년 동안 미국 명문 고등학교 입학 허가된 전체 학생들의 SSAT 평균점수를 살펴보기로 하자.

Phillips Andover (93%), Phillips Exeter (94%), St. Paul's(87%), Deerfield(86%), Milton(88%), Middlesex(86%), Hotchkiss(87%), Choate(86%), Lawrenceville(88%)
Taft(82%), Groton(89%), Concord(80%)등으로 99%로 맞는다고 명문 고등학교 입학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교 4 년 학생의 경우 미국 명문 고등학교 진학 당시 SSAT 점수가 70% 였고, 고등학교 진학 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미국 최고 대학에 입학한 경우도 경험했다. 미국 사립학교들은 SSAT 점수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평가 하지 않는다. 단지 입학의 한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입학결정에 절대적인 요소는 결코 아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 컨설팅업체, 학생, 학부모들은 SSAT 점수가 적어도 95%이상이 되어야 명문 고등학교 진학에 유리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잘못된 컨설팅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많은 실전 문제 확보는 불법이 자행된 기관이고 이런 업체 선정은 결국 장기적으로 SAT 저 득점의 요인이 되어 또다시 불법이 자행된 업체나 선생들을 찾게 될 것이다. 교육은 진실, 도덕성, 희망, 동기부여, 리더십 등을 지도해야 하는데, 최근 미국유학 시장은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학부모님들과 이것을 이용하는 업체들로 인해 "유학"이란 단어가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느껴 진다.

(SAT1, 2 시험)

미국 대학 입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교 성적(코스 난이도, 표준 시험점수, 경시대회 입상, 전문적인 리서치, 인턴십 경험), 교외활동(리더십, 적어도 주(State) 레벨 활동, 특별 섬머, 각종 대회 개인 또는 팀 입상 등), 개인의 성향(추천서, 에세이, 인터뷰)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여러 매체, 학원 관계자, 학부모, 학생들을 통해 한국 학원에서 "유행(?)"하고 있는 불법유출 시험 문제를 통한 손쉬운 SAT1, 2 고득점을 획득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짜증부터 나기 시작한다. 아무리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수한 SAT1,2 점수를 얻었다 할지라도 미국 명문 대학 진학이 용이 하지 않고, 또한 입학 후에도 미국 대학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물론 입학도 안되겠지만…)

SAT 1 은 1 년에 세번 정도(10, 1, 5 월)시험에 응시한 학생에게 문제집과 답을 구매할 수 있다. 물론 SAT2 는 절대로 구매할 수 없다. 최근 많은 한국 업체들이 많은 실전 문제 확보와 관련된 마케팅을 불법적으로 동남아 지역과 중국에서 문제 유출 및 구매, 학원 선생님들이 직접 시험을 자국 또는 타국에서 응시해서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 아르바이트생과 문제집을 훔치거나 찢는 방법으로 많은 문제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몇 월 문제가 언제 나올 거라는 점도 거의 정확히 예측하기 때문에 문제유출이 오랜 관행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하나의 중요한 예이다. SAT1 시험은 10,11,12,1,3,5,6 월에 있고 이중 3 월은 미국과 미국령인 국가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즉 10,1,5 월 시험지 외에 11,12,3,6 월 시험지를 보관 하고 있는 업체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된 문제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3 월 시험은 주로 기존에 기출된 문제가 주로 다시 출제 된다는 점을 이용해 한국에서는 주로 괌, 사이판 등에까지 가서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특별히 급하게 SAT1 점수가 3 월까지 끝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괌, 사이판 등 다른 나라에서 시험을 응시하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SAT1 은 학교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고 점수도 그 동안 본 모든 시험점수 또는 자신이 선택해서 보낼 수 있는 대학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대학이 각 분야별 고득점만 입학에 반영하기 때문에 점수 선택 유무와 상관 없이 지원자의 가장 높은 점수만 입학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아이비리그의 포함한 많은 명문대학들이 입학 평가 시 작문점수를 포함 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2400 만점에 자신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얻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독해와 수학 점수의 합이 얼마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가장 훌륭한 점수는 만점이 아니라 영수 합해 1600 만점에서 각 분야별 750 즉 1500 이면 가장 좋고 적어도 각 분야별 700 점 이상 즉 1400 이상이면 미국 모든 대학에서 SAT1 점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한국 교육 컨설턴트들과 학원 관계자들은 2400 만점에 2300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2300 이상의 점수를 받고도 아이비리그대학 진학에 실패를 했다. 오히려 명문대학은커녕 알려지지 않은 대학에서 입학허가 된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점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학교 성적이 나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이 훌륭한 학생이 SAT 점수도 좋은데 명문 대학 에서 입학 거절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필자의 학생들 중 SAT1 성적이 2090 인 학생이 하버드에 입학허가 되었고, SAT 2080 인 학생이 브라운에 입학허가를 받았다. SAT 는 입학에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다.

사실 미국에 많은 명문 교양학부 중심 대학들(Liberal Arts College)중 SAT 성적 이 선택인 대학들이 많이 있다. 이중 Bard, Bates, Bowdoin, Mount Holyoke, Wake Forest 등의 대학들은 SAT1 성적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고 실제로 입학 결정에 크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 미국 명문 대학들의 지난 4 년간 SAT 평균 점수(입학 허가된 학생들 기준)를 살펴보기로 하자.

년도(SAT 점수: Critical reading + Math)

하버드: 2008(1485), 2009(1475), 2010(1490), 2011(1490)

예일: 2008(1490), 2009(1490), 2010(1500), 2011(1495)

프린스턴: 2008(1485), 2009(1485), 2010(1490), 2011(1500)

MIT: 2008(1470), 2009(1465), 2010(1485), 2011(1490)

유펜: 2008(1425), 2009(1440), 2010(1440), 2011(1440)

스탠포드: 2008(1435), 2009(1440), 2010(1455), 2011(1455)

콜럼비아: 2008(1455), 2009(1460), 2010(1480), 2011(1475)

다트머스: 2008(1440), 2009(1445), 2010(1465), 2011(1455)

브라운: 2008(1430), 2009(1425), 2010(1430), 2011(1470)

코넬: 2008(1400), 2009(1395), 2010(1405), 2011(1400)

지난 4 년간 SAT 평균 점수가 25 점 이상 상승한 대학은 MIT, Columbia, Dartmouth 등 세 개 대학뿐이고 대부분 명문 대학들은 5-20 점까지의 점수 상승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모든 대학이 분야별 최고점수만을 입학에 반영한 결과이고 실제로 우수한 SAT 성적을 가진 학생들도 입학에서 많이 거절되었다. 이 말은 우수한 SAT 성적 학생들이 많아 SAT 평균점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명문대학들은 각 분야별 700 점 이상이면 입학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고 SAT 평균점수 상승이

입학에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 사실 많은 미국 명문대학 입학 관련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SAT 성적과 학교 성적이 우수하다고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학교 성적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명문 대학들은 학생과 학교와의 훌륭한 조화를 가장 많이 보고 학생 한 명이 4 년간 대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예측하여 학생들을 뽑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소수의 학부모와 학원이 결탁하여 SAT 시험 유출과 불법을 자행하여 많은 미국 대학들이 한국학생들을 불신하는 시각이 형성되었다. 그 중 SAT 시험지 유출, 가짜 인턴십과 리서치 기록, 유학원에서 에세이 대필 등이 이미 미국 대학에서 한국 학생들 원서를 통해 파악하고 있고 조만간 한국에서 가짜 리서치, 에세이 대필 등이 문제화 될 거라 한다. 그 처음 조치로 올해(2013-2014) 미국 대학 공통원서 에세이가 이미 바뀌었다. 그 동안 공통원서에 두 개의 에세이가 하나로 바뀌고 기존 250 자에서 650 자 이내로 5 개의 에세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쓰게 한다. 에세이 주제도 지난해 주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이미 바뀌었다. 에세이 대필, SAT 시험 등 불법적인 일들이 발생하면 할 수록 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짐을 부모들이 주는 것을 모르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분명한 것은 SAT 문제 유출이 없었다면 높은 SAT 점수가 입학에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에서 SAT 공부만 한다는 것은 대학입학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섬머, 인턴십, 리서치,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하는 학생이 일정한 SAT 점수를 받는다면 명문대학 입학에 유리할 것이다. 이미 이런 현상이 지난 6-7 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SAT 문제 유출 해결 방안)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과 학부모가 불법을 자행한 경험이 있는 선생이나 업체에 다시는 수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자식교육과 고득점 앞에서 누가 감히 이런 유혹에 넘어 가지 않을까? 참으로 아이러니한 세상이다. 남 앞에서 정의감을 내세우고 내 아이가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편법을 찾는 것이 대한민국 학부모의 현재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물론 도덕성과 정직성을 갖춘 한국 학부모님들이 훨씬 많다는 점은 다행이다. 이미 컬리지보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유출,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부정행위자와 불법 행위자들의 점수 리포트 금지와 지원 대학에 알리는 방안, 그리고 몇 년간 시험응시 금지 등이 포함되고 있다. 최근 부정행위 방지 조치로 Standby Test 제도 취소, 시험 등록증에 사진 부착, SAT 1 에서 SAT2 시험으로 변경 불가, 시험장소 변경 불가 등의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또한 문제 유형을 다양하게 만들어 최근 문제들이 특정한 기간에 다시 출제되지 않게 하는 방안 논의되고 있다. 또한 한국, 미국, 다른 동남아 지역 문제들을 각기 다르게 출제하는 내용도 논의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 원인은 불법을 통해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학원 업체들과 그것만 쫓는 학부모들 때문에 후배들이 더욱 힘들고 어려워 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학원 연합회를 통한 부정, 불법행위근절. 모든 학원이나 어학원이 학원 연합회 회원소속의 일원으로 등록이 되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을 알리고 신고하는 제도를 만든다. 연합회 회원 업체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회원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회원으로서 품위와 규정을 어기면 앞으로 몇 년간은 유사 업종이나 동일 업종 진입을 엄격히 규제한다. 한편 비회원 업체는 매 분기별 감사 또는 세무조사를 받게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원 가입을 유도 하게 된다.
둘째, 학원 교사나 개인 교사들도 국가나 특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강의가 가능 하게하고, 개인 소득도 신고 하게하여 터무니 없게 올라간 사교육비를 낮추게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는 교사는 세무조사나 자격을 정지 시켜 학원 교사나 개인 교사로서 강의를 불가능 하게한다. 미국에서는 개인 교사들도 양심 있게 세무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세금탈루로 법적인 심판을 받는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학원 강사나 개인 강사들이 학원연합회에 등록 하게하여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게 하면서 학원연합회 규정을 엄수 하게한다.
셋째, 불법 유출된 문제집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강사들은 향후 몇 년간 자격정지와 함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이런 것을 요구한 학부모나 학생들은 미국대학이나 인터넷에 공개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넷째, 학원강사, 개인교사, 대학 졸업자들의 SAT 시험 응시를 제한을 둔다. 많은 학원 강사들이 일년에 몇 번이고 SAT 시험을 응시하여 시험을 보고 있다. 요지는 문제유형 파악이다. 그러나 문제 유형 파악보다는 불법적인 행위를 위해 응시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매년 일년에 세 번씩 SAT1 문제를 살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유형 파악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물론 SAT2 의 경우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자.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유형파악 역시 올바른 변명은 아니다. 또한 응시한 학생들을 통한 직간접적인 문제유형 파악이 항상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불법행위나 부정행위를 하는 기관이나 업체를 즉시 신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지책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에서 지저분한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수치스럽다.

(AMC: American Math Contest 부정행위)

2012 년도까지 AMC 시험은 총 두 가지 유형으로 2 월에 각기 다른 유형으로 누구든지 원하면 두 번 다 응시할 수 있고, 어떤 업체든지 시험응시 기관으로만 등록하면 누구든지 학생들을 모집하여 시험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학교나 대학교에서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사설 기관에서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AMC 시험기관으로 등록하여 AMC10,12 를 대략 몇 명이 볼 것인지를 확인하여 신청하면 시험 응시날짜보다 약 이주일 정도 앞서 문제지와 답안지가 동시에 배달되어온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자신의 학원에 등록된 학생들에게 미리 받은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동일한 또는 매우 유사한 문제를 주고 연습시켜 고득점이 나오게 하는 수법이다. AMC 는 시험 후 바로 문제지와 답안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부정행위를 할 수가 있다.

최근 몇몇 한국학원들이 AMC B 형 문제 고득점을 확신하며 학생들을 모집해 뉴욕, 보스턴, 뉴저지 등에서 단기 고득점 강의를 했고 응시한 많은 학생들이 매우 만족해 했다. 그 이유는 문제가 동일 했다고 한다. 어떻게 수학문제가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이것은 특정 한국학교나 대학교에서 문제를 유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AMC 점수가 좋으면 미국대학 입학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원, 학생, 학부모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경시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은 매우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있다. 돈벌이 수단으로 불법을 저지른 한국 업체나 이것을 따르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한심스럽다. 이러다 미국대학들이 총체적으로 한국 학생들을 불신하는 풍토가 생기고 엉뚱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까 매우 걱정이 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단기고득점을 얻기 위해 등록한 학생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참여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교육적인 불신과 부정에 얼룩진 학생들이 미래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리드할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다. 검찰조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과연 검찰이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불법을 파악하고 방지할지 매우 걱정스럽다. 이번 기회에 비도덕적인 업체와 교사들이 영원히 교육계에서 퇴출되길 간절히 바란다.

필자가 그 동안 게재한, 그리고 앞으로 게재할 모든 칼럼들은 보스톤 교육원의 소유물들로써, 보스톤 교육원의 허가 없이 무단 변조, 복사, 양도, 배포, 전시, 판매, 출판,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 및 각 종 정보 서비스 활동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배할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OSTONEdu